

WORLDVIEW COLUMN



연재칼럼

메디컬칼럼 Cure & Care

상처 치유

땡스북이 만난 울타리 밖의 책

나는 오늘부터 말을 하지 않기로 했다



상 처 치 유

- 상처#1.** 수술이 끝났다. 복부에 약10cm 정도의 피부절개 자국이 남았다. 요즈음은 복강경 수술도 많이 하지만, 개복을 해야만 하는 수술이라 상처가 크다. 상처 부위에서 아직 피가 묻어나오고 있다. 하루 이를 지나면 피도 멈추고 상처도 아물기 시작한다고 한다. 이제 잘 낫기만을 기원한다.
- 상처#2.** 뉴욕에 사는 찰스는 간경변으로 사경을 헤매는 가족을 위해 본인의 간 반 이상을 절제하여 간이식 공여자가 되었다. 찰스의 간은 하나였지만 이제 두 사람을 살리는 간이 되었다. 남아 있는 찰스의 간은 어떻게 될까?
- 상처#3.** 우리교회 김집사님의 아들 철수는 학교에서의 따돌림으로 마음의 상처가 깊어 학교를 그만 두었다. 철수는 소화도 안 되고, 머리도 아프고 어지럽고, 집중이 안된다고 호소한다. 철수의 웃는 얼굴을 보고 싶다.



최현일 산부인과 전문의. 연세대학교 원주의과대학 교수와 효산의료재단 샘여성병원장을 역임하고 현재 효산의료재단 샘병원 연구원장으로 있다. 캐나다 밴쿠버 기독교세계관대학원을 졸업하였고, University of Washington 의과대학에서 Research Ethics를 공부하였다. 기독교세계관학술동역회 부실행위원장을 지냈다.

우리의 존재가 시작될 때부터 하나님이 우리 몸에 심어 놓으신 섭리의 여정을 따라가는 칼럼 열번째입니다.

칼럼의 제목은 “God Cures, We Care”에서 가져왔습니다.

성육신하신 주님도 우리와 똑같이 하나의 세포에서 배아와 태아를 거쳐 성인이 되셨습니다. 그 예수님이 설계하시고 운행하시는 우리 몸의 지도를 따라 이곳 저곳을 다니며 숨겨진 섭리를 발견하는 여정을 시작합니다. 도움과 지도를 부탁드립니다.

상처 1, 2, 3의 공통점

1. ‘관계의 깨어짐’이다.

모든 상처는 관계의 깨어짐을 수반한다. 피부와 피하 조직, 근육과 근육막, 뼈와 근육의 연결이 깨어진다. 연결되어 있었고 붙어있던 관계가 떨어진다. 혈액공급이 중단되고, 신경조직이 떨어진다. 서로를 연결하던 세포 간의 물질들이 단절된다. 모든 관계가 깨어진 것이다.

2. ‘치유의 순서’이다

몸의 상처는 거의 대부분 같은 경로를 거쳐서 상처가 치유된다.

그 첫 번째 단계는 ‘무조건적인 보호’이다.

상처가 생기면 우리 몸은 상처부위의 혈관수축부터 시작한다. 적은양이지만 국소적으로 또 전신적으로 출혈을 막기 위해 상처부위의 혈관이 강력하게 수축한다. 다른 한편으로는 출혈을 막는 또 다른 방법인 혈액응고 시스템을 작동한다. 상처의 종류와는 상관없이 상처부위에 대한 무조건적인 보호가 시작된다.

두 번째 단계는 상처 자신이 ‘내면의 힘’을 기르는 것이다.

상처부위의 혈관이 수축하고 혈액응고가 시작되면, 상처부위로 우리 몸의 백혈구들이 이동한다. 백혈구는 외부로부터의 병원도 막아주고 내부의 쓸데없는 상처잔해들을 제거하는 일을 한다. 백혈구들은 불침번과도 같이 상처를 곁에서 지켜준다. 그리고 상처의 새로운 세포들이 자라나는 다음단계가 시작되면 스스로 상처부위의 모든 쓰레기들을 품고 죽어간다. 상처 치유의 내면적 힘의 원천은 지켜주고 보호하는 백혈구들의 희생에서 발원한다.





세 번째 단계는 '새로운 시작'이다.

백혈구들의 희생적인 돌봄 가운데 원래 조직의 세포들이 자라는 시기이다. 마치 어린 아기가 자라듯이 이 단계의 세포들은 아직은 어린조직들이다. 보호가 필요하고 격려가 필요하다. 그러나 이미 이전의 두 단계를 통하여 탄탄한 기본을 갖추고 이제 상처 이전의 모습으로, 본래의 모습으로 가는 힘찬 걸음을 연습하는 시기이다.

마지막 단계는 '같지만 다른 본질'이다.

자라나는 조직세포들 사이에 이들을 지지하는 세포와 기질들이 탄탄하게 자리 잡으면서 마치 골조 사이를 메우는 콘크리트 같이 그 사이를 세포들이 채워 나간다. 이제 세포들은 안정적인 구조의 완성 속에 이전의 모습을 재현해 낸다. 치유의 메카니즘은 정확하게 이전의 상태를 회복한다. 그러나 완전히 같지는 않다. 어렸을 적 상처를 우리는 쉽게 찾을 수 있다. 주변과 약간은 모양이 다르게 흔적이 남아 있는 것이다. 흔적은 남아 있지만 더 이상 아프지는 않다. 같지만 다른 본질을 보고 있는 것이다. 완성된 상처치유이다.



3. 마지막 공통점은 모두 '최초의 자기 모습'으로 돌아가야 한다는 것이다.

피부와 근육과 간이 최초로 지어졌던 그 모습으로 돌아가야 상처는 치유되는 것이다. 그래야 상처치유의 완성이 이루어진다. '지음 받은 그 모습으로의 회복'이 상처1, 2, 3에게 공통적으로 실현되어야 상처는 치유된다. 모든 상처는 그렇게 회복되어야 한다.

상처 1, 2, 3의 현재

모든 상처는 흔적을 남긴다. 개복수술의 흔적은 복부에 남아있고, 피부에 생긴 상처는 피부에 남아 있고, 마음에 생긴 상처는 기억 속에 남아 있다. 그러나 모두 치유는 되었다. 견딜 수 없고 잊을 수 없을 것 같던 상처도 이제 흔적만 남긴 채, 원래의 모습으로 돌아가 있다. 찰스의 간은 어떻게 되었을까? 답은 이미 쓰여 있다. 원래의 모습으로 돌아가 있다. 간은 절제 후 약 2주 만 지나도 거의 처음의 크기로 상처치유가 일어난다.

상처와 치유를 위하여

우리 모두는 상처를 경험하고 살아간다. 그러나 상처가 생김과 동시에 상처 치유의 과정도 시작된다. 상처가 시작되는 순간 혈관이 수축하고 혈액이 응고 되며, 백혈구의 응집과 새로운 세포의 증식 및 조직 리모델링의 전 과정이 준비된다. 사실 우리는 상처로 인해 재창조의 과정을 경험한다. 우리 몸이 생길 때와 거의 동일한 과정이 상처 치유의 과정을 통해 재현된다. 상처가 새로운 창조를 인도한다. 따라서 우리가 겪는 상처는 새 창조의 시작이다. 